



퇴직연금 가입자 300만 명 돌파

이경아 연구원

■ 퇴직연금 제도 도입 6년 만에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을 넘었으며 적립금도 40조 원을 돌파했음.

- 1월 6일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2011년 11월 말 현재 301만 7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함.
- 전체 상용근로자 912만 6천 명 중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중은 33.1%로 사업장별로는 5인 이상 회사 근로자의 36%, 4인 이하 회사 근로자의 9.9%가 각각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음.

■ 퇴직연금의 누적 적립금액도 2011년 11월 기준으로 40조 9천 529억 원으로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음.

- 2011년 12월에 결산을 앞둔 기업들이 9조 원 가량의 적립금을 한꺼번에 낸 것을 고려할 때 2011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조 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됨.
-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은 2009년 11월에 10조 원, 2010년 9월에 20조 원, 2011년 1월에 30조 원의 규모로 증가하여 왔는데, 이는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기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.
- 11월 말 현재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(DB)이 72.5%, 확정기여형(DC) 17.8%, 개인퇴직계좌(RIA) 개인형 8.2%, 기업형 1.4% 을 나타냄.

■ 금융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전체 적립금의 48.7%, 생명보험권 26.2%, 손해보험권 7.3%, 증권 17.3% 을 차지하였음.

-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방법 중에서는 원리금 보장상품(92.3%)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가운데서도 예금(56.7%)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금리형 보험(35.9%), 주가연계증권 등 기타 (7.4%)가 뒤를 이었음.

(연합뉴스, 1/6)